

대책협의회 전쟁피해국 여성단체 연대계획

유엔에 정신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지난 2월12일부터 3월10일 까지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 해 17일 서울에서 귀국기자 회견 을 가진 정신대 대책협 이호재

이 대표는 또한 “앞으로 한국과 같은 전쟁피해국인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권 여성단체들과 정신대 문제에 대한 연대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보훈단체 반발일차 허가반려

부산영성중학교 인명합회
 여성들의 전회 부산지역여성
 무인인(無人仁) 유정현 「진신
 대 문제대행 부산합회의 회
 (회장 金文淑)」 19월 30
 일 부산시의 「자정신사
 유령비건립하기」를
 내고 19월 대청포대청포
 원내의 유령비를 세울 계
 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광복회 상임경
 회 전체인 1997년 10월 부산
 지회 부회장 최복남, 「여가
 정정인, 김남, 정영호, 외 전
 의 의원, 1997년 10월 30일 중
 국인인 부추모비를 세우고

自民 完강 거부에 사회당 여론호소 작전

【東京】李東椿을 파원(派員) 일 본 사회당의 시미즈(清水澄子) 참의원의원에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1일 참의원에 상의, 대정부 질문 때 자신이 한국인출구위원 부사장이 된다고 고백한 오시다(吉田)를 참 고인으로 불러 증언을 들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오시다씨의 참고인 증언문제는 여야간에 절충 중인데 자민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기.

시미즈의원에 회견에서 자신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1920년 10월 13만 9천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推定)라고 밝혔다.

한편 일방식이다와 지방 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시나가와(神奈川) 현즈시(逗子)시가 한국인 노동자

의 강제연행설과 조사를 위
한 예산을 금년도 예산의
반영하였으나, 자민당측
의 반대로 무산됐다.

18일 조시사의 회 토론에
서 조시계 의원들은 『장차
인도네시아에 있을 조국
자녀를 깨우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좋다』 『萬世一系
의 天璽아래서 한민족의
영광이다』 같이 찬양했다.
그리고 조국을 내세우며
반대했다고 아사하(朝日)
신문은 보도했다.